

[사회]

광주·전남 4년제대 20곳 중 11곳 신입생 충원율 80% 밑돌아

영광 영산신학대 등 4곳은 절반도 못 채워

광주·전남지역 4년제 대학들의 신입생 부족 현상이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최순영(민주노동당)의원이 전국 20개 4년제 대학으로부터 제출받은 '2006학년도 신입생 충원 현황'에 따르면 충원율 80%를 채우지 못한 대학 31곳 중 11곳이 광주·전남지역 대학이었다.

광주 9곳, 전남 11곳 등 20개 4년제 대학 중 절반 이상이 해당된 셈이다.

특히 영광 영산신학대(정원 50명)는 충원율 6%로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광양 한려대(정원 645명) 29.8%, 순천 명신대(정원 241명)

42.3%, 영남 대불대(정원 1천576명) 49.7% 등 4개 대학은 50%도 채우지 못했다.

이외 무안 초당대(정원 1천300명) 56.2%, 나주 동신대(정원 2천703명) 57.4%, 광주 남부대(정원 965명) 64.1%, 광신대(정원 137명) 70.1%, 호남대(정원 2천204명) 72.3%, 광주대(정원 2천1명) 76.7%, 광주여대(1천10명) 79.7% 등도 충원율이 80%를 밑돌았다.

광주지역 한 대학 관계자는 "미충원율이 높을 경우 등록금 수입이 줄고, 이는 고스란히 대학의 재정압박으로 이어져 교육 투자에 소홀하게 되고,

■광주·전남 충원율 80% 미만 대학 (단위:명,%)

대 학	모집인원	충원율
남부대	965	64.1
광신대	137	70.1
호남대	2204	72.3
광주대	2001	76.7
광주여대	1010	79.7
영광영산신학대	50	6
광양한려대	645	29.8
순천명신대	241	42.3
영암대불대	1576	49.7
무안초당대	1300	56.2
나주동신대	2703	57.4

교직원 처우 개선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이는 다시 신입생 미충원으로 이어지는 등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말했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전남대 등 8개 의·치학 전문대학원 석·박사 통합 7년과정 생긴다

빠르면 내년부터

이르면 2007학년도부터 전남대 치의학 전문대학원 등 8개 의·치학 전문대학원에 석사와 박사학위를 통합한 7년 과정의 프로그램이 개설된다. 이 과정에 지원하면 학자금 및 생활비까지 지원되고 전문연구원으로 편입 및 병역특례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0일 이런 내용의 '의·치학의 학사학위 과정 도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현재 의·치학 전문대학원에 설치돼 있는 대학에서는 빠르면 2007학년도부터 4년의 의학 교육 기본과정(M.D.)과 3년의 학술 박사 학위과정(Ph.D.)을 동시에 이수할 수 있는 석·박사 통합과정을 개설 운영할 수 있다.

교육부 조사 결과 2007학년도에 건국대 3명·이화여대 2명·경희대 6명·부산대 3명·가천의대 2명·포천중문의대 2명 등 6개 의학 전문대학원에 총 18명, 전남대 3명·경북대 3명 등 2개 치의학 전문대학원에서 6명을 모집하는 등 8개 대학이 도입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2008학

년도에는 강원대·경북대·경상대 등 3개고, 2009학년도에는 조선대·가톨릭대·서울대·성균관대·아주대·인하대·충남대·한양대·연세대·중앙대 등 10개교가 도입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을 마치면 의사면허 시험 응시자격과 함께 전문석사 학위와 관련분야 박사 학위를 동시에 받는다.

교육부는 우수학생을 확보하기 위해 선발된 학생에게는 장학금이나 수업료 면제를 통해 등록금을 지원하고 2단계 BK21 사업 지원금에서 1인당 월 90만 원의 수련지원금을 별도로 지급할 예정이다. 또 전문연구원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병역특례 혜택을 주는 방안도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키로 했다.

지금은 의학박사 학위를 따려면 의과대학의 경우 학사 6년+석사 2년+박사 2~4년, 전문대학원의 경우 학사 4년+석사 4년+박사 2~4년의 과정을 밟아야 한다.

교육부는 전문대학원 전체 입학정원 1천441명의 3~5%(43~72명) 정도의 학생을 제한적으로 선발해 시범적으로 운영한 뒤 점진적으로 선발인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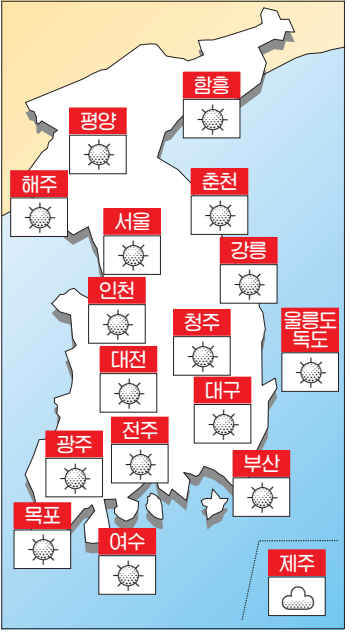
큰 일교차...건강관리 주의

아침과 낮의 온도차가 크기 건강관리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9월 11일 (윤 7월 19일) ◇전국날씨



지역	날씨	기온
서울	맑음	13~25
부산	맑음	15~25
대구	맑음	16~24
대전	맑음	14~25
전주	맑음	14~26
광주	맑음	13~25
제주	맑음	13~25
경북	맑음	14~25
충남	맑음	15~26
충북	맑음	11~26
강원	맑음	14~26
경상	맑음	16~25
전남	맑음	11~25
전북	맑음	9~25
제주	맑음	11~25



서해남부 앞바다=북동~남동풍 파고 0.5~1.0m
 먼바다=북동~남동풍 파고 1.0~1.5m
 남해서부 앞바다=북동~남동풍 파고 1.0~2.5m
 먼바다=북동~남동풍 파고 1.5~3.0m
 목포 밀물 < 04:23 썰물 < 09:31
 목포 밀물 < 16:56 썰물 < 21:56
 여수 밀물 < 11:24 썰물 < 04:58
 여수 밀물 < 23:29 썰물 < 17:18

▲해돋이 06:12 ▲해질 18:46 ▲달돋음 20:44 ▲달질 10:01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12(화)	13(수)	14(목)	15(금)	16(토)	17(일)
날씨	☁	☁	☁	☁	☁	☁
최저/최고	16/27	17/26	18/27	17/26	18/25	17/26

“시내버스 노선개편 시민의견 듣습니다”

광주시, 순회 공청회 열고 홈페이지 접수창 마련

광주시는 10일 시내버스 노선개편을 위한 공청회·시 홈페이지 의견 접수 등을 통해 시민의견을 적극 수렴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효율적인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위해서는 현행 버스 노선을 대대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보고 지난해 9월부터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해 노선 개편안을 마련해 왔다.

자치구별 순회 공청회는 서구청(12일), 남구청(13일), 북구 문화시설사업소·광산구청(14일), 동구청(15일) 순이다. 광주시 홈페이지에는 11일부터 노선개편 의견 수렴창을 마련해 10일간 노선 개편안을 안내하고 시민 의견도 받는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맞춰 운

영될 노선개편안은 단일교통카드 사용에 따른 환승체계 구축, 중부노선 감축, 급행버스 도입, 번호체계 변경 등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현행 공동배차제 방식에서는 연간 190억원 가량의 적자 발생이 예측됨에 따라 시가 수익금 관리와 일본 경정 등을 맡는 대신 적자를 보전하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 11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문금주 광주시 대중교통과장은 “공청회와 시 홈페이지에 제출된 시민의견에 대해서는 오는 20일부터 광주시와 용역기관, 버스조합 관계자 등이 현장방문과 사실조사를 거쳐 노선개편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주정기자 jjnnews@kwangju.co.kr



그림도 보고 노래도 듣고
 광주 비엔날레 개막 3일째인 10일 관람객들이 비엔날레 전시관 앞 피카세 원형무대에서 열린 그룹 D.A.I의 '환상의 보이스 이카펠라' 공연을 관람하고 있다. 휴일인 이날 비엔날레 전시장에는 7천여명의 관람객이 찾았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비만환자 5년새 9배 증가

관련 질환 발생률도 1.8배 늘어

최근 5년 동안 비만환자들의 숫자가 9배나 늘었으며, 비만 관련 질환 발생률도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장복심(열린우리당) 의원은 10일 이 같은 조사 결과가 담긴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공개했다.
 건보 자료에 따르면 비만환자는

2000년 말 3천111명에서 지난해 말 2만7천977명으로 9배 가량 급증했다. 비만환자 진료비도 1억5천여만원에서 11억9천여만원으로 7.5배 가량 증가했다. 비만으로 유발되는 대표적 질환인 당뇨병·심장질환·고지혈증·고혈압·심근경색 등 5가지 질환의 환자 수도 5년간 평균 1.8배가 늘었으며, 관련 진료비도 평균 2.5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비만환자의 성비는 여성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000년에는 비만환자의 성비가 남성 881명, 여성 2천230명으로 여성이 2.5배 높았으며, 이후 격차가 지속적으로 늘어나 지난해에는 여성 비만환자(2만3천782명)가 남성(4천195명)보다 5.7배 많았다. 장 의원은 “국내 비만 인구는 전체 인구의 32.4%로 지난 10년간 1.6배나 증가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며 “비만질환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홍보 등 국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입사시험 영어회화가 당락 좌우

토익·토플 중요도 갈수록 떨어져

최근 주요 기업들의 신규채용이 한창인 가운데 기업체 입사시험에서 토익, 토플의 중요도는 갈수록 떨어지는 반면 영어회화 능력이 당락을 좌우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토익, 토플은 점수가 높다 하더라도 활용도가 떨어지는 데 비해 영어회화는 곧바로 실전에서 위력을 발휘,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연결시켜 때문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그룹, SK그룹, 현대.기아자동차그룹 등 국내 주요 그룹들이 영어회화 가능 여부를 채용의 중요한 기준으로 채택하고 있다. 삼성그룹은 직군에 따라 토익 점수가 620~860점은 꽤야 지원 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최소한의 자격요건으로 점수가 높다고 해서 우대하지는 않는다. 삼성이 올해부터 당락을 결정할 정도로 중요하게 여기는 요인은 영어회

화능력으로 ‘최소한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이 걸여된 것으로 판단되면 다른 평가항목의 성적과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하기로 했다. 따라서 토익 점수가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영어회화 능력이 떨어진다면 입사할 수 없다. 현대.기아차도 영어면접을 도입해 영어 구사 능력을 측정하고 있다. 특히 올 상반기 공채부터는 원어면접관이 영어면접을 진행해 회화 가능 여부를 판단하며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응시자는 탈락 처리하는 등 실무에 필요한 어학능력을 점검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GM대우자동차도 입사지원 때 토익성적표를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면접 때 영어 인터뷰 시간을 별도로 배정해 어학사 능력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재인지 평가하고 있다.
 /연남뉴스

아파트 LCD TV 광고 시범 II 대리점 모집 TELSON MEDIA (주) 엘손미디어

Have a Nice Golf Trip

인테리어

활기찬 삶! 생활의 활력소!